

# 자유간접화법 연구

## —A. Camus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정 지 영  
(불어불문학과 교수)

### I. 머리말

타인이나 자신의 말 혹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전통적으로 직접화법,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 등 세 가지에 의존해 왔다. 전통문법은 이러한 표현방식을 주로 형태·통사론적 관점에서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 언어학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발화 énonciation에 관한 연구가 구체화되면서부터 화법을 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발화의 관점에서의 화법은 하나의 발화체 énoncé 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발화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이 때 발화란 화자 locuteur에 의한 발화체의 산출을 말하는데, 이 경우 화자는 여러 방식으로 인용 담화에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직접화법,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과 같은 화법의 형태들은 형태·통사론적인 변이체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말, 혹은 생각의 전달양식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Bakhtine에 의하면, 전달화법 discours rapporté은 담화 discours 안의 담화, 발화 안의 발화인 동시에 담화에 대한 담화, 발화에 대한 발화인 것이다.<sup>1)</sup> 타인의 말을 가치평가하며 능동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모두 내적인 발화라는 매체에 의해 표현된다. 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언어가 없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인 말로 가득찬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내적 발화의 맥락에서 타자의 능동적인 발화가 수용되고 이해되며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화자의 능동적인 지향이 발생한다. 이 내적발화 속에서의 능동적인 수용, 즉 전달화법의 과정은 두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타인의 발화에 실제적인 논평을 가하는 층위와 내적인 응답이 형성되는, 대답을 준비하는 층위이다. 이 두 층위간에는 고도의 복잡성과 긴장의 역동적인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Bakhtine은 전달화법을 연구할 때 이 두 층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sup>2)</sup> 따라서 『이방인』에 쓰인 자유간접화법을 고찰하기에 앞서 <화법>간의 상호관계

\*본 논문은 199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한 것임.

1) Mikhail Bakhtine,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Ed. de Minuit, 1977, p.161.

2) 앞의 책, p.166.

를 살펴 보겠다.

## Ⅱ. 직접화법

직접화법으로 옮겨진 담화는 이원화된 화자 locuteur를 갖는다. 어떤 한 화자가 책임을 지는 발화 안에 또 다른 화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제2의 발화가 출현하는 경우가 바로 직접화법이다. 예를 들어 Jean이 《*Pierre m'a dit: Je viendrai.*》라고 말할 경우, 여기 등장하는 1인칭의 두 표지(*me, je*)는 각각 서로 다른 존재를 지칭한다. 이것을 연속적인 두 개의 발화체 énoncé로 볼 수 없는 까닭은, 발화체는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데, *Pierre m'a dit*라는 분절체 segment는 이 독립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하나의 발화체가 서로 다른 두 화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 1 화자는 Jean과 일치할 수 있고, 제 2 화자는 Pierre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제 1 화자가 책임지는 발화체의 일부를 제 2 화자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Maigneueau 역시 한 명의 발화 주체 sujet parlant가 자신의 발화의 화자로서 나타나면서 전달된 말 propos rapporté의 책임은 제 2의 화자, 즉 직접화법의 화자에게 양도한다는 점을 직접화법의 속성으로 보고 있다.<sup>4)</sup>

직접화법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원래의 담화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하나의 말 parole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듣게 한다. 전달의 진실성은 원래의 말 parole과 전달자의 담론 속에 등장한 말 간의 물리적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달자가 반드시 물리적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원래의 말의 요점을 알리기 위해 전혀 다른 말을 등장시키면서도 그 근본 의도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한층 더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Ducrot는 2분 동안에 이루어진 담론을 2초 만에 직접화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예를 들고 있다. *En un mot, Pierre m'a dit: "J'en ai assez."*<sup>5)</sup> 통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두 개의 언술체계가 분리되는 것이 직접화법의 특징인 것이다.

## Ⅲ. 간접화법

앞에서도 보았듯이 직접화법은 다른 발화행위의 말 parole을 충실히 전달하는 발화체이다. 반면, 간접화법은 그 의미차원에서만 전달담화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기표 signifiant

3) O. Ducrot, *Le dire et le dit*, Ed.de Minuit, 1984, p. 171.

4) D. Maigneueau, *E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Bordas, 1986, p. 87.

5) O. Ducrot, *Le dire et le dit*, p. 199.

를 다시 산출하지 못하고 인용담화 discours citant에 통합되어 의미적 등가치만을 제공하므로 하나의 화자 locuteur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간접화법에는 인용담화에 의존하는 단 하나의 발화상황 situation d'énonciation만이 있게 된다. 이 밖에 인용된 담화 discours cité에서는 대화상대자 interlocuteurs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는 감탄이나 의문 또는 명령 등 모든 양태가 배제된다. 뿐만 아니고 인용된 담화는 아무런 자율성도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상실은 언술의 주관성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칭과 지시소 역시 인용담화에 종속된다. 인용된 담화에 <je> 또는 <tu>가 쓰였을 경우 이것들이 대화인칭 interlocuteur이 아닐 때에는 《비인칭 non-personne》으로 전환된다.<sup>6)</sup>

#### IV. 자유간접화법의 특성

이것의 출현은 17세기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르네상스의 비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간접화법의 동사 시제와 서법에 대한 엄격한 활용규칙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화법으로서의 자유간접화법은 문법의 정립 이후, 시제의 일치의 도입 덕택에 하나의 뚜렷한 담론의 형식으로 부각되었다. 자유간접화법에서 도입 동사의 생략은 서술자 narrateur와 작중인물 personnage의 동일화를 기리키며, 직접화법의 현재와는 대조적인 반과거의 사용과, 간접화법과 일치하는 인칭대명사의 선택은 서술자가 자신의 자율적인 지위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자신의 인물의 정신활동에 합병되어 흔적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사실 창작에 몰입한 작가에 있어서는 자신의 환상이 현실 그 자체를 구성한다. 작가는

6) E. Benveniste는 발화에서 교대로 주역이 되는 두 인물 je-tu를 《대화인칭 personne de l'interlocution》이라고 불렀다. 그는 인칭체계를 1인칭과 2인칭의 체계로 축소시키고, 3인칭에는 인칭의 성격을 거부하여 3인칭을 《비인칭 non-personne》으로 규정한다. 언어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대화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결국 인칭이 아니라는 입장에서이다. Maingueneau는 《대화인칭》과 《비인칭》의 성격에 기인하는 양자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대화인칭》은 발화체의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한정되는 반면, 《비인칭》은 한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대화인칭》은 반드시 발화체의 현장에 있고 접촉상태에 있는 데 반하여, 《비인칭》의 경우에는 현장에 있건 없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대화인칭》은 언어 형태 면에서 불 때 대리어를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각 화자는 매번 <je>, <tu>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으나, 《비인칭》에 해당하는 명사군은 다양한 대명사 대리어를 지니고 있다. 넷째, 《대화인칭》은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 즉 언어학적 주제(sujets linguistiques)일 수 밖에 없는데, 《비인칭》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아무 지시대상에나 다 적용된다. (Maingueneau, *Approche de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Hachette, 1981, p.98.

7) Bakhtine의 앞의 책, p. 208.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들(작중 인물)만을 보게 된다. 작가는 직접화법에서처럼 그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환청과도 같이 이 목소리에 의해 산출된 생생한 인상은 자유간접화법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이 목소리는 La Fontaine의 우화의 세계에서 최초로 울려 퍼졌고, 19세기에 이르러 Balzac, Zola 그리고 Flaubert 같은 작가들에게 소중한 기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흔히들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의 억양, 감탄사 등의 표현양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직접화법에서처럼 시제와 인칭이 바뀌는 등,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혼합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Bakhtine은 자유간접화법을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의 독특한 혼합물》이라는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유간접화법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두 형태를 산술적으로 더해 놓거나 기계적으로 혼합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 타자의 발화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완전히 새롭고 적극적인 발화체임을 역설하였다.<sup>8)</sup> 자유간접화법은 서술체의 담론 discours narratif과 전달화법 discours rapporté 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다음성 polyphonie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하는 발화체 énoncé인 것이다. 각 발화체 안에 화자 locuteur의 단일성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았던 종래의 언어관에서 보면 발화체 안에 동시에 말하는 여러 음성이 있음을 인식한 Bakhtine의 다음성 개념은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언어학자 Ducrot나 Maingueneau도 자유간접화법을 근본적으로 다음성에 근거를 둔 독창적인 발화 énonciation로 보고 있다. 이 화법의 경우, 진정한 하나의 발화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섞여 있는 두 개의 음성 voix(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음성도 있을 수 있다)—서술자 narrateur의 음성과 작중인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간접화법에는 두 사람의 언술자 énonciateurs가 등장하며, 서술자는 자신을 이 두 《음성》 중 어느 하나와 일치시킨다. 발화와 말 parole을 책임지는 것은 두 사람의 화자가 아니라, 두 개의 《음성》, 두 가지의 관점이라는 것이다.<sup>9)</sup>

자유간접화법은 분명한 표지를 가진 도입 양식과는 본질적으로 화해하기 힘들다. 이 화법의 묘미는 인용된 담화 discours cité가 자율성을 지니면서 인용담화 discours citant와 인용된 담화 간의 기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이다.

자유간접화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과는 달리 고유한 언어학적 표지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맥을 떠나서는 판별하기 힘들다. ② 특별한

8) Bakhtine의 앞의 책, p.195.

9) D. Maingueneau, *É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Bordas, p. 96.

도입 양태(단절, 혹은 종속)를 갖지 않는다. 독자가 발화체의 불일치의 출현을 감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는 매우 당황하기 마련이다. ③ 자유간접화법은 문장의 통사에 속하는 현상이 아니라 극도로 다양한 차원의 텍스트 전체에 걸쳐 있다. 독자는 문장차원을 넘어서는 단위들—즉 문장의 경계를 넘어서지만 하나의 발화단위에 결합된 단위들—을 재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이 출현하는 장소와 끝나는 순간을 뚜렷이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유간접화법에는 고유한 표지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화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을 간접이나 직접화법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도입동사에 의한 종속, *je-tu*와 같은 연동소 *embrayeurs*의 존재—은 자유간접화법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 *je*와 *tu*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이 *je*와 *tu*는 화자나 인용담화의 상대화자 *allocutaire*와 일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짝을 이루는 두 대화자(*une paire d'interlocuteurs*)를 가리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l protesta avec une soudaine fermeté et plaïda contre lui-même. Je ne saurais, disait-il, mesurer l'étendue de sa faute.*(F.Mauriac, Maingueneau, *É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p. 99에서 재인용)

위의 예문에서 *je*는 인용담화의 장본인(il)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대화인칭(*personne de dialogue*)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간접화법의 특성을 또 다른 각도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된 화법인 간접화법에 가까운 자유간접화법, 그리고 서술자의 목소리 보다는 작중인물의 목소리가 강하게 부각되는 자유간접화법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예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sup>10)</sup>

(1) *On entendait Mes-Bottes traiter le père Colombe de fripouille, en l'accusant de n'avoir rempli son verre qu'à moitié. Lui, était un bon, un chouette, un d'attaque. Ah! zut! le signe pouvait se fouiller, il ne retournerait pas à la boîte, il avait la flemme.*

(Zola, *l'assomoir*, chapitre II)

(2) *Ensuite, il se fâcha, força le docteur à accepter un verre de quelque chose. La demoiselle ne lui ferait pas l'affront de refuser du sirop. Il porta une table dehors, il fallut absolument trinquer avec lui.*

(*Le Docteur Pascal*, chapitre II)

위의 두 예문에서 이탤릭 체는 자유간접화법으로 구성된 발화체이다. (1)의 경우 감탄

10) Maingueneau의 앞의 책, p.99에서 인용.

부호, 화자의 주관성에 속하는 어휘 등의 출현에 의해 직접화법의 어조를 띠고 있는 자유 간접화법임이 확인된다. 반면 (2)에서는 인칭대명사와 시간의 지시소 《ferait》가 간접화법의 인용된 담화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동사(verbe de locution interlocuteur)만을 첨가한다면 간접화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1)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전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 V. A. Camus의 『이방인』에 쓰인 자유간접화법

E. Benveniste는 「불어 동사에서의 시제 관계」라는 그의 글에서 Camus의 『이방인』을 지칭하면서 《(…)통계에 따르면 완전히 복잡과거로 씌여진 역사적 이야기들이 드물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건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이끌어가는 데 복잡과거가 얼마나 적합치 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술이 의도적으로 완전히 복잡과거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현대 작품(Benveniste는 여기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다)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이기를 바라는 이야기 récit의 어조와 표현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자서전적인 형태인 1인칭 복잡과거 사이의 대비에서 생기는 문체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sup>11)</sup>라고 피력하고 있다. Benveniste의 이러한 견해는 비단 문체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 자유간접화법의 차원에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A. Camus의 『이방인』에는 자유간접화법으로 쓰인 발화체의 예가 대략 55개<sup>12)</su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들을 분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발화체 안의 연동소에 의해 서술체와 구별되는 것.
  - 2) 앞 또는 뒤에 놓인 어휘에 의해 자유간접화법임이 드러나는 것.
  - 3) 동일한 발화자의 발화체를 간접화법—자유간접화법—직접화법, 또는 직접화법—자유간접화법—간접화법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미루어 보아 서술체로 간주할 수 없는 것.
  - 4) 양태소 modalisateur에 의해 자유간접화법임이 밝혀지는 것.
  - 5) 직접화법과 혼합된 자유간접화법
  - 6) 간접화법과 혼합된 자유간접화법
- 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방인』에 쓰인 자유간접화법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1)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p. 244.

12) <대략>이라고 한 것은 서술체 narration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개 있기 때문이다.

(1) Raymond m'a téléphoné au bureau. Il m'a dit qu'un de ses amis (il lui avait parlé de moi) m'invitait à passer la journée de dimanche dans son cabanon, près d'Alger. J'ai répondu que je le voulais bien, mais que j'avais promis ma journée à une amie. Raymond m'a tout de suite déclaré qu'il l'invitait aussi. *La femme de son ami serait très contente de ne pas être seule au milieu d'un groupe d'hommes.*

(A. Camus, *L'Étranger*, I-5, p.62, Gallimard, 1953)

레이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알제리 근처의 조그만 별장으로 와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도록 나를 초대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마는 어떤 여자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레이몽은 그 여자 친구도 같이 오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부인은, 온통 남자들뿐이고 여자라곤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하리라고 했다.<sup>13)</sup>

(1)은 주인공 뫼르소 Meursault와 그의 친구 레이몽 Raymond이 전화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이텔릭체는 DIL<sup>14)</sup>로 구성된 것으로서, 얼핏 독자들은 DI 다음에 서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레이몽이 뫼르소에게 전한 내용을 DIL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발화자의 말을 두 표현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확증은 무엇인가? 조건법 현재로 쓰인 *serait*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DI에 특유한 《시체의 일치》에 부응하는 조건법 현재로서 《과거의 미래》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앞에 DI로 쓰인 인용담화 Raymond m'a tout de suite déclaré que가 배제된 담화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단절이나 종속관계가 배제된 채,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아무런 구속없이 작가는 지극히 객관적인 표현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Peu après, le patron m'a fait appeler et, sur le moment, j'ai été ennuyé parce que j'ai pensé qu'il allait me dire de moins téléphoner et de mieux travailler. Ce n'était pas cela du tout. Il m'a déclaré qu'il allait me parler d'un projet encore très vague. *Il voulait seulement avoir mon avis sur la question. Il avait l'intention d'installer un bureau à Paris qui traiterait ses affaires sur la place, et directement, avec les grandes companies et il voulait savoir si j'étais disposé à y aller. Cela me permettrait de vivre à Paris et aussi de voyager une partie de l'année.* 《Vous êtes jeune, et il me semble que c'est une vie qui doit vous plaire.》

(앞의 책, p. 68)

조금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전화는 되도록 삼가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하려니

13) 카뮈, 『이방인』, 김화영 옮김, 책세상, 1987.

14) 이후로는 편의상 자유간접화법을 Discours indirect libre의 첫자를 따서 DIL, 간접화법은 DI, 직접화법은 DD로 표기함.

생각하자. 돌연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아직 막연하지만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만 그 문제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들어 볼 생각이었다. 파리에다가 출장소를 설치하여,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갈 생각이 있는지 나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자네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자네 마음에 들 것 같은데.>

(2)의 경우는 (1)의 예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1)과 마찬가지로 같은 발화자의 말을 DI에 이어 DIL(사장이 말한 발화체임이 확인되는 것은 (1)에서처럼 형태소-r에 의해서이다)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발화체 전체가 DI-DIL-DD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객관성을 띤 DIL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법은 『이방인』 전체를 통해 빈번히 나타나는 구성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서로 그 위상을 달리하는 연동소 <me>와 <mon>의 출현이다. DI의 <me>(Il m'a déclaré의 경우)는 대화상대자로서의 <me>이다. 반면, DIL의 mon (mon avis)과 me(Cela me permettait)는 발화주체 sujet parlant<sup>15)</sup>에 속하는 연동소이다.

(3) (...) J'ai mis du temps à le comprendre, à ce moment, parce qu'il disait «sa ma tresse» et pour moi, elle était Marie. Ensuite, il en est venu à l'histoire de Raymond. J'ai trouvé que sa façon de voir les événements ne manquait pas de clarté. Ce qu'il disait était plausible. J'avais écrit la lettre d'accord avec Raymond pour attirer sa maîtresse et la livrer aux mauvais traitements d'un homme «de moralité douteuse». J'avais provoqué sur la plage les adversaires de Raymond. Celui-ci avait été blessé. Je lui avais demandé son revolver. J'étais revenu seul pour m'en servir. J'avais abattu l'Arabe comme je le projetais. J'avais attendu. Et «pour être sûr que la besogne était bien faite», j'avais tiré encore quatre balles, posément, à coup sûr, d'une façon réfléchie en quelque sorte.

«Et voilà, messieurs, a dit l'avocat général. J'ai retracé devant vous le fil d'événements qui a conduit cet homme à tuer en pleine connaissance de cause.»(앞의 책, II-4, p. 141)

사건을 보는 그의 방식은 여간 명석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 듯했다. 나는 레몽과 합의하여, 그의 정부를 피어다가 (품행이 좋지 못한)사나이의 악랄한 손아귀에 넘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몽의 적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몽이 다쳤던 것이다. 나는 레몽에게서 권총을 달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혼자서 되돌아 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랍인을 쏘아 죽인 것이다. 조금 기다려서, <일이 잘 되었음을 확

15) O. Ducrot에 의하면 화자 locuteur와 발화주체를 구별하고 있다. 화자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발화체의 산출자를 일컫는다. 발화주체는 언어를 현동화시키는 발화주체로서 언어행위를 책임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D. Maingueneau, *É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p. 70)



인하기 위하여) 다시 네 방의 탄환을 태연하게, 말하자면 깊이 생각한 끝에 쏘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과 같습니다.〉 하고 검사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책, pp.123-124)

이텔릭체는 부장검사의 논고를 서술자 *narrateur*가 다시 요약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이 것이 DIL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지시소(*Et voilà*)와 *J'ai retracé devant vous le fil d'événements...*에 의해 뚜렷이 입증되고 있다.

발화체가 모두 1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음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발화자 *locuteur*(부장검사)로서의 1인칭과 발화주체 *sujet parlant*<sup>16)</sup>(피르소)의 위상을 갖는 1인칭의 음성이다. 이처럼 발화내적 행위 *acte illocutoire*가 화자와는 다른 발화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질적인 다음성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으로 발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발화자의 태도를, 다른 한 편으로는 화자인 부장검사의 억지 논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작가는 피르소의 진실과는 괴리된 재판의 허상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어법 *ironie*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Ducrot에 의하면, 아이러니에서는 화자와 발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sup>17)</sup> 흔히 아이러니에서 발화자가 정해진 한 인물과 동일시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대화자 *allocutoire*가 되지만 이러한 동일시가 상대화자 이외의 다른 인물을 결부시킬 수도 있다. *Auto-ironie*(자기 자신을 조롱할 경우)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오늘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날씨가 더없이 좋을 경우, 나는 나 자신의 일기예보 능력을 비웃게 된다. 따라서 나는 파란 하늘을 가리키며, 《*vous voyez bien, il pleut*》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스꽝스러운 발화자는 바로 나 자신과 동일시된다. L과 λ의 구별이 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오직 발화를 책임지는 L이 불합리한 관점의 발화자와 동일시하는

16) 화자 *locuteur*와 발화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학자에 따라 발화주체 *sujet parlant*라고도 하며 또는 *nonciateur*라고도 한다.

17) 전통적 해석에서 아이러니는 반어법 *antiphrase*의 형태로 취급되어 왔다. 즉 화자가 A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non-A를 말한다는 식이다. 그것은 A의 책임자와 non-A의 책임자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아이러니란 하나의 문체 *figure*로서, 원래의 자의적 의미가 변경되어 파생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Ducrot는 아이러니한 담화를 항상 *locuteur*와는 다른 어떤 인물로 하여금 명백하게 터무니 없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 *locuteur*의 것이 아니며 주장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또다른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ucrot, 앞의 책, pp.210-11)

존재란 바로 능력도 없으면서 날씨를 예보하려 들었던 무식한 기상학자이다. 그러나 L이 발화자의 책임자로서 발화체를 선택한 까닭에, 그가 드러내기로 한 것은 기상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조소의 행위이다. L은 자기 자신의 담론 내부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한 발화자(비록 세계 내에서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라 할지라도)에 의해 수행된 일기예보를 제시함으로써 그는 조롱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auto-ironie*의 전략적인 묘미가 나온다. L은  $\lambda$ 의 어리석음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고, 그 결과  $\lambda$ 도 이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 L은  $\lambda$ 의 다양한 모습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합리한 발화자가 반드시 정해진 누군가와 동일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이러니에서는 화자가 일치할 수 있는 발화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Orecchioni의 경우는 아이러니를 지시적 아이러니 *ironie référentielle*와 언어적 아이러니 *ironie verbale*의 두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전자의 경우는 아이러니의 대상이 된 정신적 태도와 관찰자의 태도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기표 *signifiant*와 관련된 두 의미 층위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전의 *trope*이다. 이러한 구분을 따른다면 『이방인』에서 대하게 되는 아이러니는 주로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독백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모순성을 추출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DIL로 구성된 발화체의 인용부호 《*de moralité douteuse*》, 《*pour être sûr que la besogne était bien faite*》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용부호 안에 있는 표현과 발화주체 간의 단절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또다른 《음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진행중인 발화체와 결부되어 텍스트 안에서 고립된 발화체로 DD에 가까운 인용구를 이루는 것이다.

(4) *J'ai diné chez Céleste. J'avais déjà commencé à manger lorsqu'il est entré une bizarre petite femme qui m'a demandé si elle pouvait s'asseoir à ma table. Naturellement, elle le pouvait. Elle avait des gestes saccadés et des yeux brillants dans une petite figure de pomme.*

(앞의 책, p. 66)

나는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막 먹기 시작했는데 키가 작은 이상스러운 여자가 한 사람 들어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물론 앉아도 좋다고 말했다. 몸짓은 앙증스럽고, 능금 같은 작은 얼굴에 눈이 빛나고 있었다.

(앞의 책, p. 65)

화자가 자신의 발화체에 대해 동감의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즉 다소간

18) K-Orecchioni, *L'ironie comme trope*, dans *Poétique* 41, 1980 pp. 1108-1127.

의 동감의 정도를 나타낼 때 양태소에 의존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naturellement*은 서술자에게 속하는 부사가 아니고 간접의문문으로 제기한 의견에 화자인 뫼르쑤가 동의하는 뜻을 나타내는 양태소인 것이다. 또한 *pouvait*도 서술자에게 속하는 <가능성>이 아니고 발화차원에서의 <허락>을 내포하는 연동소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

(5) Ensuite, il a beaucoup bavardé. (a) *On l'aurait bien étonné en lui disant qu'il finirait concierge à l'asile de Marengo. Il avait soixante-quatre ans et il était parisien. A ce moment je l'ai interrompu: «Ah! vous n'êtes pas d'ici?» Puis je me suis souvenu qu'avant de me conduire chez le directeur, il m'avait parlé de maman. Il m'avait dit qu'il fallait l'enterrer très vite, parce que dans la plaine il faisait chaud, surtout dans ce pays. C'est alors qu'il m'avait appris qu'il avait vécu Paris et qu'il avait du mal l'oublier.* (b) *A paris, on reste avec la mort trois, quatre jours quelquefois. Ici on n'a pas le temps, on ne s'est pas fait à l'idée que déjà il faut courir derrière le corbillard. Sa femme lui avait dit alors: «Tais-toi, ce ne sont pas des choses à raconter à monsieur.» Le vieux avait rougi et s'était excusé. J'étais intervenu pour dire: «Mais non. Mais non» Je trouvais ce qu'il racontait juste et intéressant.* (앞의 책, pp. 15-16)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마랑고 양로원에서 그가 문지기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혹시 누가 말했더라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예순 네 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다. 그 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아! 이 고장 분이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인도하기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는, 더구나 이 지방은 날씨가 몹시 더우니까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자기는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씩이나 문지 않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다, 실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써 영구차를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 뒤요. 그런 이야기는 이 분에게 할 게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문지기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앞의 책, p. 26)

위의 예는 전체가 서술과 발화체로 혼합되어 있는 담론에 속한다. (a)에서 <...il a [beaucoup] bavardé>(수다스럽게 이야기하다)라는 수행동사 구문이 발화의 연속성을 막연히 암시해 주고 있지만 대화자 *allocutaire* (여기서는 뫼르쑤)의 개입을 뜻하는 <...je l'interrompu>(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를 읽을 때에야 비로소 앞의 담론이 DIL로 구성된 발화체임을 알게 된다.

앞의 예문 (3)에서도 보았듯이, 『이방인』에는 이처럼 분리된 화법의 화자의 입을 통해 앞의 발화체가 DIL임이 밝혀지는 예가 빈번하다.

(b)의 경우 이탤릭체 부분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 오는 <tais-toi, ce ne

sont pas des choses à raconter à monsieur.)>(그만 뒤요. 그런 얘기는 이 분에게 할 게 아니예요.)라는 문지기 아내의 개입이 앞의 이텔릭체가 발화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연동소의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직설법 현재(reste, a, faut)는 내용으로 보아 역사적 현재 présent historique로 간주하면 된다. 그러나 DIL에서는 금기처럼 되어 있는 복합과거(on ne s'est pas à fait l'idée...)의 사용은 작가의 오류인가? 한 가지 해결방법은 인용담화 Discours citant와 인용부호가 생략된 일종의 직접화법으로 보든가 아니면 혼합담화 discours mixte 또는 혼합문체 Style mixte<sup>19)</sup>로 잠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6) Je n'avais pas le droit de me montrer affectueux, d'avoir de la bonne volonté. Et j'ai essayé d'écouter encore parce que le procureur s'est mis à parler de mon âme.

Il disait qu'il s'était penché sur elle et qu'il n'avait rien trouvé, *messieurs les jurés*.

지금의 나에게는 다정스런 태도를 취하거나 선의를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검사는 나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다.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 나는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DI에는 하나의 발화상황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용된 담화 discours cité는 아무런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서, 발화전체를 책임지는 하나의 화자 locuteur만이 제시된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보듯이 *messieurs les jurés*(배심원 여러분)는 분명히 DD의 어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DI와 DD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잠정적으로 혼합문체 style mixte에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5), (6)은 앞으로 다음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I. 맺는 말

지금까지 A. Camus의 『이방인』에 쓰인 자유간접화법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유간접화법에서는 작중인물이 서술자의 음성을 빌려 말을 하게 되고, 서술자가 인물의 담화를 자신이 담화 속에 해석하는 까닭에 두 담화 현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Gennette<sup>20)</sup>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은 전체 텍스트가 자유간접화법의 기조 위에서 서술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발화체가 자유간접화법으로 나타날 때에는 1인

19) J. Sumpf에 의하면 혼합문체에는 표현성, 화자의 관점, 특수한 문체적ニュ앙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Sumpf, J., *Introduction à la stylistique du français*, Librairie Larousse, 1971)

칭 서술자로서의 피르쑤, 행위자로서의 피르쑤, 작가 Camus라는 세 개의 목소리가 텍스트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데 반해, 타인의 발화체가 자유간접화법으로 나타날 때에는 통사적 표지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은 소설 장르의 대화성을 이루는 이질적 요소의 혼합을 나타내며, 복수의 발화자의 다음성을 반항하는 주요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텍스트

A. Camus, *L'Etranger*, Paris, Gallimard, 1953

참고 문헌

Benveniste, E.,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Gallimard, 1966.

Ducrot, O., *Le dire et le dit*, Paris, Edition de minuit, 1984.

Maingueneau, D., *E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Paris, Bordas, 1986.

Maingueneau, D., *Approche de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Classic Hachette, 1981.

Bakhtine, M.,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Edition de Minuit, 1977.

Kerbrat-Orecchioni, C., *L'énonciation de la subjectivité dans le langage*, Paris, A. Colin, 1980.

\_\_\_\_\_, *L'ironie*, Collection *Linguistique et Sémiologie*, 2, Presse Universitaire, Lyon, 1978.

Gennette, G., *Figures III*, Paris, Seuil, 1972.

Weinrich, H., *Le temps*, Paris, Le Seuil, 1973.

Lips, M., *Le style indirect libre*, Paris, Payot, 1926.

Sumpf, J., *Introduction à la stylistique française*, Paris, Larousse, 1971.

Plénat, M., "Sur la grammaire du style indirect livre", dans *Cahiers de grammaire*, I, 1979, pp.95-140.

---

20) Gennette, *Figure III*, Seuil, 1972. p.194.

## 《RESUME》

## Le discours indirect libre, spécialement étudié dans L'Etranger d'Albert Camus

Ji-Young Chung

On sait bien qu'à côté du couple que forment discours direct et indirect il existe une forme de citation plus complexe, mais plus souple, qui apparaît comme une tentative pour cumuler les avantages des deux autres stratégies : *le discours indirect libre*.

Ce procédé a représenté longtemps un défi pour l'analyse grammaticale. On y trouve en effet mêlés des éléments qu'on considère en général comme disjoints : la dissociation des deux actes d'énonciation, caractéristique du discours direct, et la perte d'autonomie des embrayeurs du discours cité, caractéristique du discours indirect.

Comme nous l'avons constaté au cours de cette étude, le discours indirect libre ne possède pas de mode d'introduction spécifique. En la matière n'importe quoi peut convenir; il suffit que le lecteur puisse remarquer l'apparition d'une discordance énonciative. Le plus souvent il existe néanmoins des signaux. Voici un exemple tiré de *L'Etranger*:

Ensuite, il a beaucoup bavardé. *On l'aurait bien étonné en lui disant qu'il finirait concierge à l'asile de Marengo. Il avait soixante-quatre ans et il tait parisien. A ce moment je l'ai interrompu : «Ah! vous n'êtes pas d'ici?»* (A. Camus, *L'Etranger*, p. 15)

Dans les propos du concierge trouve-t-on au début "...il a beaucoup bavardé." Ce verbe n'est d'ailleurs pas un verbe de locution. On ne sait pas exactement si la suite des énoncés appartient au personnage ou au narrateur. On arrive pourtant à confirmer l'énonciation par le propos d'intervention de l'allocutaire : "A ce moment je l'ai interrompu."

D'autre part, le discours indirect libre présente des visages très divers, oscillant entre ces deux pôles extrêmes que sont, d'un côté, le discours dépourvu des marques de subjectivité du locuteur cité, de l'autre, un discours proche du discours direct, où la voix du personnage domine largement celle du narrateur. Je citerai un exemple curieux où sont mêlés les éléments du discours direct et de discours indirect libre.

Puis je me suis souvenu qu'avant de me conduire chez le directeur, il m'avait parlé de

maman. Il m'avait dit qu'il fallait l'enterrer très vite, parce que dans la plaine il faisait chaud, surtout dans ce pays. C'est alors qu'il m'avait appris qu'il avait vécu à Paris et qu'il avait du mal à l'oublier. *A Paris, on reste avec le mort trois, quatre jours quelquefois. Ici on n'a pas le temps, on ne s'est pas fait à l'idée que déjà il faut courir derrière le corbillard.* Sa femme lui avait dit alors : «Tais-toi, ce ne sont pas des choses à raconter à monsieur.» (Ibid, pp. 15-16)

Ce que nous avons placé ici en italique relève du discours indirect libre. Pourtant, sur quels critères peut-on s'appuyer pour l'affirmer, alors qu'on se heurte à une forme passée (“on ne s'est pas fait à l'idée...”) qui est propre au discours direct? Du point de vue stylistique et sémantique ce discours du héros ne se distingue en rien du discours direct, même s'il n'y ait pas de rupture qui est spécifique pour le discours direct. Bakhtine avait raison de remarquer que, “lorsqu'il y a solidarité entre auteur et héros dans les limites d'un contexte construit rhétoriquement, pour ce qui concerne les appréciations et intonations, la rhétorique de l'auteur et celle du héros peuvent quelquefois se recouvrir l'une l'autre; leurs voix, alors, se fondent...”<sup>1)</sup>

En ce qui concerne l'exemple de L'Étranger cité plus haut, je n'hésiterai pas à dire que c'est un procédé singulier dans lequel sont mélangés le discours direct et le discours indirect libre (pour l'instant, j'appellerai *discours mixte*).

---

1) Mikhail Bakhtine,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p. 191.